

재난관리와 손해보험의 역할



양희산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1. 머리말

국내는 물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대구지하철 화재사고가 발생한지 만 1년이 넘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참여정부는 국가의 재난관리 체계를 총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내에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기획단을 설치하고, 기본법 제정을 비롯한 기존의 조직과 독립된 재난관련 외청을 설치하는 계획안을 입안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소방과 재난 관련 기관들 간의 갈등을 빚게 되어 이의 조율에 거의 1년여 기간이 걸리고 최근에 들어서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현실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의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에 맞추어 재정경제부에서도 발 빠르게 기존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을 종합 재난관리시스템에 맞게 개정하고자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연구하게 하

고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그동안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여 좋은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가의 재난관리 시스템 정착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보험을 통한 피해구제를 하는데 있어 손해보험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원론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피력하고자 한다.

2. 재난실태 및 손해보험 기능

가. 재난발생 실태

(1) 연도별 현황

1995년 이후 재난발생 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330,393건으로 가장 많은 재난이 발생하였고, 특히

〈표 1〉 연도별 재난발생 현황

연 도	발생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백만원)
1995	287,934	370,663	1,051,700
1996	302,047	343,331	651,660
1997	281,232	361,411	674,543
1998	301,517	354,519	828,600
1999	301,683	418,552	757,800
2000	330,393	444,216	794,500
2001	301,663	400,158	706,029
2002	269,704	360,526	521,069

인명피해는 1999년부터 2001년 사이에 40만명이 넘게 나타났다. 또한 재산피해는 '95년도의 대형 붕괴 사고의 영향으로 가장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최근 몇 년간에는 약 7,000억원 내외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2) 유형별 현황

1995년 이후 총 발생 재난 건수 2,362,957건에서 도로 교통사고가 2,066,579건으로 전체 재난 발생 건수의 87.5%를 차지하고 있어 발생빈도에 있어서 도로교통 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이는 '90

년대 이후 도로 확충에 비해 차량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과는 달리 도로 여건의 미흡과 운전자들의 전반적인 안전의식이 개선되지 않아 소규모 차량사고가 수시로 빈발한데 기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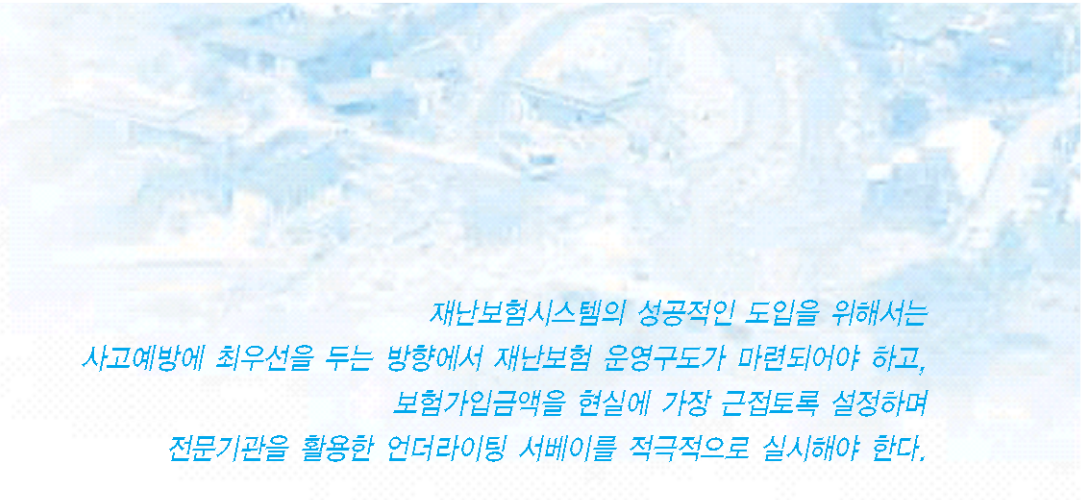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화재 254,314건이 발생하여 전체의 10.8%를 차지, 도로교통사고 다음으로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사고를 제외하였을 경우 사고 건수 296,378건중 화재가 254,314건으로 85.8%를 차지하여 재난의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다음은 산불

〈표 2〉 재난 유형별 발생 현황

구분	계	화재	산불	붕괴	폭발	도로교통사고	환경오염	유도선사고	해난사고	기타사고
1995	287,934	26,071	630	503	364	257,403	56	8	540	2,359
1996	302,047	28,665	527	89	576	265,052	75	12	523	3,809
1997	281,232	29,472	524	88	235	246,452	65	12	572	6,528
1998	275,467	32,561	265	100	135	239,721	112	15	650	1,779
1999	314,517	33,566	315	50	142	275,938	88	2	803	3,325
2000	330,393	34,844	729	54	113	290,481	82	-	657	3,433
2001	301,663	36,169	785	41	82	260,579	81	-	614	3,312
2002	269,704	32,966	599	97	86	230,953	60	-	652	4,291
계	2,362,957	254,314	4,374	1,022	1,733	2,066,579	619	49	5,011	28,836

※ 자료 재난연감, 행정자치부



재난보험시스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사고예방에 최우선을 두는 방향에서 재난보험 운영구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현실에 가장 근접토록 설정하며 전문기관을 활용한 언더라이팅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0.19%, 해난 0.21%, 폭발 0.07%, 붕괴 0.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액을 결정하며 적정한 보험료의 산정이라는 효과를 얻는다.

나. 손해보험의 기능

손해보험의 본원적 기능은 말할 것도 없이 사고 보상 기능이다.

손해보험은 이와 같은 본원적 기능 이외에도 안전 점검을 통한 사고예방이라는 부수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을 통하여 국가 사회 및 보험 계약자에게 기여하고 손해보험회사 자신도 많은 효익을 얻고 있다.

(1) 국가사회 및 보험계약자의 효익

손해보험은 국가사회적 측면에서 사고 예방을 통한 사회적 손실을 경감시키고, 국민적 안전의식을 제고하며 재난보험제도 시행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보험계약자는 손해보험을 통하여 안전 진단 전문가로부터의 방재 전문지식 습득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며 안전권고사항의 준수에 따른 보험료의 할인혜택이라는 효익을 얻는다.

(2) 손해보험회사의 효익

손해보험회사는 사고예방 및 경감활동을 통하여 손해율을 안정시키고 보험계약의 인수와 적절한 보

3. 재난관리와 손해보험의 역할 과제

재난관리와 손해보험의 역할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러나 현재의 재난대비 손해보험은 제도와 운영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보험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세분화된 위험에 따라 보험요율에 이를 반영하여 차별화시키는 방법이 없고, 과거 손해율을 개별 반영하는 할인·할증제도 등의 인센티브제도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따라서 새로운 재난보험 시스템의 도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재난보험은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복구와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복지사회의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기본적으로 사고예방에 최우선을 두는 방향에서 운영구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피해자 구제와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재난보험을 의무보험으로 운영하여 미가입자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막을 수 있는 합리적인 시스템과

피해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가입주체에게 보험가입의 선택폭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상품이 개발 운영되어야 하고, 가입자간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 피해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에 따른 배상금액이 보험제도에 의해 보장될 수 있도록 보험가입금액을 현실에 가장 근접토록 설정하고, 보험가입자가 보험에서 보상받는 담보위험의 종류는 재난을 포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위험특정방식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대형재난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국가가 최종 책임을 지는 위험분담자, 소위 최종 재보험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미 우리는 농업재해보험에서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다.

셋째, 국민들의 손해보험에 대한 신뢰를 돈독히 하고 보험요율의 합리적 책정 등을 위하여 일반적인 안전진단을 의무화하는 이외에도 안전점검 및 위험

진단 전문기관을 활용한 언더라이팅 서비스를 적극 실시하고, 보험계약자의 선택폭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인 재난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가입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손해보험업계는 모든 회사가 일정 수준이상의 독자적인 위험관리 시스템을 설치·유지하기가 어렵고, 재난예방차원의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오랜 경험과 기술을 가진 기존의 전문 안전점검 기관을 발전시키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함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4. 맺음말

재난관리에 있어 손해보험의 역할은 매우 지대하다. 사실 효율적인 재난보험제도가 도입되어 제대로 정착하기만 하면 사회적 불합리성을 시정하고 정부 예산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피해자에게는 충분한 보상방안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손해보험업계가 재난보험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최근 한 손해보험업계 CEO가 자성의 목소리로 상호간에 'Fair Play'와 'Win-Win'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 국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자사의 이익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전체 업계의 발전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재난보험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정부, 보험회사, 안전점검 또는 관리 전문기관들의 전향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바라마지 않는다. ☎

